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염 미 애*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문 혁 준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관계가 있는가? 셋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와 관계가 있는가? 넷째, 유아의 정서지능을 예측해 주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중산층 지역 5개의 구립어린이집 만 4세, 5세 유아 267명(만4세 131명, 만5세 136명)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지능 평정은 담임교사가 하였다.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정서 지능 평가척도는 김경희(1998)가 작성한 것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이병래(199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참여도는 이영환, 조복희, 이진숙(1999)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산적 어머니 노력' 연구에서 양육참여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Pearson's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기정서의 이용,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또래와의 관계,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등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의 관계에서는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서는 어머니의 자기긍정의 자세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어머니의 자기부정의 자세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셋째, 자기긍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정의 자세 또한 발달적 지지,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정서 지능을 예측해 주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성별과 나이로 밝혀졌으며, 영향력은 18%였다.